

국정자원 화재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도봉구, 신속 복구·불편 최소화 區 홈페이지·SNS에 대대방문 안내

도봉구(구청장 오연석)가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와 신속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이 본부장을 맡으며, 부구청장과 행정안전국장이 전반적인 상황 관리와 복구 총괄을 지휘한다.

실무반으로는 상황지원반, 시스템장애대응반, 대민업무대응반, 홍보대응반 등으로 편성했으며, 관계기관 상황전파, 행정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24 등 온라인 대민 서비스에 대한 장애 현황과 대체 방법을 안내해 주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민 대상으로 단체 문자를 발송해 주요 공지와 긴급 안내 사항을 전파하고 잘못된 정보확산을 막고 있다.

오연석 구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에서 협력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 복구까지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민포 기자 mmh@siminilbo.co.kr

동작구, 오픈스튜디오 개방

영상 제작·미디어 체험 기회 제공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최근 구청 신청사 지하 1층에 조성한 '동작오픈스튜디오'를 주민에게 정식 개방했다고 밝혔다.

'동작오픈스튜디오'는 38.84㎡ 규모에 전문 장비와 방송 조명 등을 모두 갖춰, 영상 제작은 물론 다양한 미디어 체험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 9월4~5일 이틀간 진행된 '미디어 아트홀 특별 체험행사'를 시작으로 스튜디오 운영을 개시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평일 오전 11시~오후 6시 운영된다. 구민 누구나 월~수요일에는 3D 스케치 미디어 아트홀 체험(직접 그림 그리기), 목·금요일에는 ▲뉴스데스크 제작 체험을 할 수 있다.

단, 공간 대관 및 방송촬영 신청 시 운영이 중단될 수 있어 방문 전 구청 홍보담당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스튜디오에는 누구나 영상 제작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회 최대 4시간까지 대관 가능하다. 올해는 조성 기념으로 무료 개방하며, 주말 대관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진교초 구청장이 봉제산 황톳길 개장식에 참석해 맨발로 황톳길을 걷고 있다.

강서구, 봉제산 황톳길 개장... 체력단련장도 설치

강서구(구청장 진교준)가 구민 건강과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봉제산 지역에 새로운 황톳길을 열었다.

구는 지난 29일 봉제산 입구(화곡동 산22-15 일대)에 총연장 110m 규모의 순환형 황톳길을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황톳길 조성으로 강서구에 합력 황톳길은 총 12곳으로 확대된다.

봉제산 황톳길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조성했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황톳길 주변에 체력단련장, 황토볼장, 세목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마련됐다.

특히 체력단련장(산악장)은 지붕을 설치해 비가 와도 이용이 가능하며, 11종의 운동기구들을 갖춰 산책과 운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황톳길은 배수 기능이 우수한 친환경 '어싱 황토'가 사용됐다. 또한 길 주변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돼 휴식기를 맡으며 산책할 수 있도록 했다.

박소진 기자 zini@naver.com

마포구, 17일까지 마약류 예방 집중 캠페인

마포구(구청장 박관수)는 추석 연휴와 겹쳐진 대미를 앞두고 유청소년 마약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오는 17일까지 '마약류 예방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활동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청소년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마약류 유류와 유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교정한다.

구는 기존에 시행하던 클럽·유흥주점 등 흡·음용업소 대상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합동 단속과 예방 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업소 출입문과 눈에 잘 띄는 장소에는 마약 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고, 테이블마다 예방 문구가 새겨진 병따개 홍보물을 비치해 이용객들이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구가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지역내 유흥시설에 배포해 업주들이 화장실 등 밀폐된 곳에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내부 공간에서도 마약 예방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문민포 기자 mmh@siminilbo.co.kr

관악구, 가을 태풍 대비 공중선·전신주 안전점검

관악구(구청장 박관수)는 최근 가을철 태풍 및 추석 명절에 대비해 지역내 공중선과 전신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전 점검은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강풍, 기습폭우 등에 대비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추석 연휴기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구와 한국전력공사, 주요 통신사업자(SKB, LGU+, KT, KHCN)가 협력해 지정된 정비구역 7곳에서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전기 및 통신선의 끊어짐, 늘어짐, 전신주의 기울어짐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난 및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를 포함했다.

점검 중 발견된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보수 및 조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추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작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문민포 기자 mmh@siminilbo.co.kr

서대문구, 이화여대 상권 홍보 매거진 발행

서대문구(구청장 이현정)가 이대 상권 활성화와 위한 홍보 매거진 '행복상점 3호'를 30일 발행했다.

'행복상점'은 이대 상권 내 특색 있는 가게를 소개하는 12페이지 분량의 홍보 잡지로 지난해 11월 창간했다.

이번 호에는 사대만 '홍담이'가 추천하는 맛집, 서대문 로컬 크리에이터가 찾은 뷰드·잡화점, 이대 앞 미스터리 지식충전 공간, 취향 확실한 청년들의 이유 있는 창업, 그루브가 있는 이화로의 밤, 이화로 맛집, 이화로 HOT 플레이스, 이화로 햄

복잡한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용산구, 지역 건축사 간담회

용산구(구청장 박화영)는 최근 지역내 건축사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규제 완화·내부 방침 수립으로 이어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최근 구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 관계자들과 건축 행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구 행정사항 규제 완화, 타 자치구 행정 처리 대비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건축물 용도·지침(이더리언) 수립 ▲건축물의 대상 기존 상황 의견 ▲해체신고 건 지역 건축사 지정 감

리 ▲지역내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 지정 및 보호 필요 의견 ▲인허가 협의시 특정 업무로 인한 시간 지체 등 불편사항 등 다양한 사항이 제시됐다.

구는 이날 논의된 내용 중 ▲건축계획위원회의 심의 기준 상향 ▲건축물의 시 교통영향평가 통합 심의 건의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 후 내부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화영 구청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한 혁신위원회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우리 구 역시 지역 건축사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지역 발전과 안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민포 기자 mmh@siminilbo.co.kr

성동구, 6년간 침수 피해 '0건' 자연재해 선제 대응 강화 결실

시설 투자·인프라 확충 지속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15년부터 침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울여온 결과, 2019년 이후 '침수 피해 0건(제로)'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한강, 뚝방천, 창계천을 끼고 있어 서울 최대 수변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과거 상습 침수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구는 2015년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침수 예방 대책에 돌입했다. 성동구 정 지역의 노후·불량 상하수도에 대한 전면 교체를 시작한 것이다. 기존에 좁고 오래된 하수관로를 대형 하수관로로 교체함으로써 배수를 원활하게 하여 근본적인 침수 대응력을 키웠다.

그동안 구는 2015년부터 10년간 노후·불량 하수관로 총 69km를 정비했으며, 현재도 3km에 달

한 추가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수도 1008km와 빗물받이 37만383곳에 대한 준설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속한 하수 시설물내 퇴적물 제거로 침수 피해 예방과 악취 개선에 앞장섰다.

또한 2015년 승정, 사근빗물펌프장, 2019년 청담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통해 배수 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빗재 누락을 뚫었다. 최근 기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상당된 빗재 상층 목표에 따라 급호빗물펌프장 건설을 통해 배수 능력을 높여준다는 추진 예정이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침수 피해는 9건으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2019년 이후 해 6년간 '침수 피해 0건'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재난 예방을 위한 구의 지속적 인투와 인프라 확충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박소진 기자 zini@naver.com

위례성대로 '매력 정원' 조성

송파구, 소나무·초화류 식재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송파구와 하남시 경계부 위례성대로에 송파의 정체성과 품격을 담은 '매력 정원'을 새롭게 조성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먼저, 길이 230m·면적 200㎡ 녹지대에 '소나무 숲'을 조성하고, '송파(松坡)'라는 이름에 걸맞게 구를 상징하는 소나무(장성) 60주를 녹지대 중심에 식재한다.

녹지대 하부는 말채나무, 홍가시나무, 자작나무 등 다양한 화관종을 비롯해 개화 시기가 다른 초화류 30여종을 식재해 사계절 변화를 따라 다양한 색깔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블에는 꽃잔디, 매발톱, 여름에는 개망초, 모스포크스, 숙근 사부마리, 가을에는 코스모스, 꽃무릇, 구절초 등을 식재한 상록수림 환풍기 조성한다. 노란, 빨간, 흰색 등 다양한 색채를 활용해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또한, 매력 정원의 녹지대 단차 해소를 위해 조성장을 쌓고, 차량 진입자의 시야 높이를 고려하는 등 단순한 식재를 넘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형 가로녹지를 구성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매력 정원이 방문객을 활기차게 맞이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성할 녹지 확충을 지속 추진해 '송파의 녹색도시 송파' '변화 거점정원도시 송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종로구, 84개 공동주택 입주민 소통간담회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공동주택 입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폐하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지난 25~26일 구청사 12층 교육강당을 외부·임의관리단지 등 84개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통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걸쳐 치러진 이번 행사에는 1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공동주택 사정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은 창선로 일대 도로 열선 공사과 인도 확장을 위한 가로수 제거, 세정정조용화학교 인근 육교 지붕 설치 등 생활과 밀접한 민원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종로구는 현재 지역내 주요 18개에 열선을 설치한 점을 안내하고 10월에는 학교와 아파트사 정류장 인근 등 인접한 구간에 추가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가로수 제거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해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세정정조용화학교 육교와 인도 설치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한 후 추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고 답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